

경제림 성적은 우량 건묘 식재가 좌우한다

한국임정연구회장 김 영 달

I. 서 언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제일 먼저 훌륭한 재료를 마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임업은 종자를 뿌려 묘목을 생산하는데 3~5년이 소요되며 생산된 묘목을 식재하여 50~100년의 세월을 통하여 정성들여 가꾸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어려운 사업임으로 우량한 건묘 생산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인 것이다.

形質이 우수한 종자를 골라 파종을 하여 좋은 묘목을 길러내야 하는 양묘사업이야말로 임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며, 매우 까다롭고, 많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種子를 고르는 일만해도 種子의 產地와 母樹의 선정, 채취, 선별, 저장, 品種의 감정, 파종전 처리 등 수종에 따라 여러 가지 까다로운 방법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그 다음해 묘포장을 선정하여 파종을 하고 다시 토양관리, 복토, 쪼넛기, 쪼넛기, 해가림, 관수, 숙으기, 풀뽑기, 비료주기, 상채, 단근 등 수종과 목적에 따라 매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실새없이 몇 년간을 노력하여 비로소 묘목을 얻어내는 것이며, 생산된 묘목 또한 형질이 우수하고 뿌리, 줄기, 눈 모양 등이 건강한 묘목만 골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 보관하여 조림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업경영이라 하면 조림에서부터 육림, 벌채, 운반, 가공 등 일련의 작업을 포함시키고 조림작업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이며, 조림 이전에 이루어지는 종자채취에서부터 양묘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양묘사업을 따로 떼어내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묘사업이야말로 인공림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림 조성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업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 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조림사업을 해왔다.

그 당시만 해도 황폐산지를 복구하고, 땃감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묘목의 질보다 양에 치중하였으므로 우량건묘 조립원칙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1·2차 10년 계획 기간 중 연간 조립사업 면적이 10만ha를 초과하였으며, 87년도 묘목생산 실적이 8억6천8백만본이었던 기록으로 보아도 그 당시의 양묘사업 규모와 조립사업 실정을 알만한 것이다.

그 당시는 기업양묘, 산림조합양묘, 마을양묘로 나누어 대대적인 양묘사업을 실시하였는바 비교적 양묘기술이 어려운 오리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 고급수종은 기업양묘로 생산했고, 아까시아, 밤나무접목묘 등은 산림조합에서 담당했으며 비교적 기술이 쉬운 포플러, 현사시나무 등 속성수는 마을 공동양묘로 묘목을 생산하였다.

위에서 말한 기업양묘는 1923년 조선총독부시절에 결성된 산림사업용 생산자를 말하는 것이나 5·16혁명 정부에서 치산녹화를 위하여 연료림, 사방사업용 등으로 대량의 묘목이 필요함에 따라 1961년에 회원수 210명으로 사단법인 한국양묘협회가 되었다. 1988년 이후 얼마 동안은 102명으로 회원수가 감소된 상태에서 정부산림사업용으로 소요되는 묘목총수량의 50%를 생산 공급해온 바 있다.

마을양묘는 1959년 연료림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1961년부터 부락산림계 단위로 묘목을 생산한 것인데, 소요자재는 선불보조로, 노력은 마을공동으로 작업을 하여 그 소득은 마을·산림계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점차 부락민의 공동 정신의 결여 등으로 계획생산미달, 대리양묘성행 등 문제점이 많아 시·군 산림조합에 승계된 후에 산림조합양묘로 발전했다.

산림조합 양묘는 당초 마을양묘의 기술지도를 위하여 산림조합 양묘지도원, 밤나무 접사 등 인력을 확보하여 담당하여오다 1964년부터 마을양묘의 문제점이 많아지자 산림조합에서 직접 양묘사업을 인수하여 전담하게 되었다.

그 당시 방대한 면적의 조립사업,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는 마을양묘 등 양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니 종자에서부터 생산과정에 이르기까지 건묘조립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경제림 즉 용재생산보다 사방사업, 연료림 등 조기 녹화사업에 치중하였으므로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하겠으나 “현사시나무” 조립과 같이 불량묘목이 조립된 사례 등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임업정책상 시행착오를 남기게 된 것이 사실이다. 임업에 있어 우량한 건묘조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경험으로 삼을 일이라 하겠다.

오늘날의 임업은 30~40년 전의 사방사업이나 연료림을 조성하던 당시의 임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동안 녹화에 성공한 역사를 가진 우리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질 좋고 훌륭한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임업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가서 임업에 실패하였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훌륭한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우량한 건묘를 생산하는 일이 시급하고도 기본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즉, 생산비에 비하여 묘목가격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어, 오랫동안 양묘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종갱신 등 신규조림의 물량 감소로 인한 묘목수요량 감소, 우량한 종자 확보의 곤란, 기술의 침체, 생산비의 상승 등 ……

경제림 조성사업의 기본이 되는 양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양묘협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새로운 각오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 몫을 찾는데 노력하는 한편, 양묘사업을 건전한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총 매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 임업정책이 경제림 조성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량한 경제림 조성을 위하여 채종원을 중심으로 한 우량종자 확보와 종묘의 국가관리 체계를 엄격히 확립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양묘사업에 있어서도 용기양묘와 기계화 조림을 위한 규격묘 생산 등 고급양묘 기술 개발로 회원 각자의 수익을 높이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2 임오(壬午)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경제임업 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그 기본이 되는 건묘생산기반 확충, 기술개발에 더욱 힘쓸 것을 바라면서 한국양묘협회 회원여러분과 임업인 여러분의 건강과 아울러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